

광주디자인진흥원, 글로벌 협업 모델 구축

일본 모리린 협력…페섬유 업사이클 소재 제품 개발

KDM+ 광주지부 참여…디자인코리아 전시 등 성과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일본 글로벌 텍스타일 기업 모리린(Moririn)과 협력해 추진한 ‘친환경 소재 기반 글로벌 디자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모리린은 연 매출 1조원 규모의 일본 대표 섬유 기업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바탕으로 친환경 소재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양 기관이 함께 진행한 이번 프로젝트는 페의류·섬유 리사이클 보드

‘PANECO’, 블록형 업사이클 소재 ‘nunock’ 등 지속가능한 소재를 활용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개발하는 국제 산·학 협력 프로그램이다.

프로젝트에는 KDM+ 광주지부 회원 13명이 참여해 약 3개월 동안 소재 조사, 디자인 전략 수립, 시제품 제작, 기업 피드백 반영, 전시 연출 등 산업 현장과 동일한 프로세스로 과정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친환경 디자인 실무 역



량 강화는 물론,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경험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종 결과물은 데스크 오브제와 조명, 성장 단계별 아동 맞춤형 모듈 가구, 어린이 공간용 구조물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

일 제품으로 구성됐다. 단순 제품 개발을 넘어 모리린 참여기업의 브랜드 인지도 확신을 위한 기업 소개·홍보 플랫폼까지 기획하며 프로젝트의 범위를 한층 넓혔다. 기업 소개 콘텐츠 제작, UX 기반 정보

구조 설계, 브랜드 메시지 전달 방식 연구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제안서를 완성했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열린 ‘2025 디자인코리아(KDM+ 통합부스)’에서 전시돼 업계 전문가와 일반 관람객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광주디자인진흥원 관계자는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국제 산·학 협력 프로젝트에서 참가자들이 실무형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디자이너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RISE센터,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

지역대학 평가·환류 모델 논의

광주RISE센터는 최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RISE사업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 및 자체평가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 대학 및 전문가들과 향후 평가체계의 방향성과 운영 기준을 공유했다.

간담회에는 RISE사업 참여대학의 사업단장과 성과관리 실무자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RISE사업이 지역 주도의 고등교육 혁신 정책으로 정착해가는 과정에서 성과관리 체계의 정교함과 평가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지표 체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대학 현장의 실무적 어려움 등을 공유하며 실효적 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센터는 그동안 지역 대학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며 자체평가 모델의 기본 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대학별 특성과 성과지표의 다양성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의 고도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착수보고회에서는 △대학 특성 기반 평가 요소 체계 보완 △지표 운영의 정확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한 개선안 마련 △지표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환류체계 구축 등이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됐다.

광주RISE센터 관계자는 “지역 대학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 RISE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며 “표준화와 유연성을 동시에 갖춘 평가 모델을 개발해 지역 주도 고등교육 혁신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박셀바이오, 차세대 표적항암제 선도물질 발굴

박셀바이오는 최근 국가신약개발사업 단과 분자 모터 단백질인 MYO1D(Myosin 1D) 제거 기반 차세대 표적항암제 선도물질 발굴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가신약개발사업인 ‘신약 기반 확충연구(선도물질)’이란 과제에 선정되면서 이뤄졌다.

박셀바이오는 오는 2027년 9월까지 2년간 정부 지원을 받아 암세포 원형질막에 성장인자수용체(Growth Factor

Receptor, GFR)를 고정해 암세포 표면에 유지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MYO1D 단백질질을 분해하는 저분자 신약 선도물질을 탐색 및 최적화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박셀바이오 R&D센터 김경근 전무가 주도하는 연구팀은 선형연구에서 MYO1D 단백질이 정상형뿐 아니라 돌연변이 성장인자수용체도 암세포 원형질막에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

5억원 성금…강기정 시장 “따뜻한 나눔 큰힘”

세방그룹이 5억원 규모 차량 13대를 광주시에 기부했다.

광주시는 24일 광산구 세방전기 로켓볼 레아웃에서 세방그룹,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기부차량 전달식’을 열고,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차량을 지원했다.

이번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박정희 세방전기 대표이사, 구제길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차량지원기관 임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기부 차량은 세방그룹이 지난 1월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5억원의 성금을 바탕으로 마련했다. 사회복지시설 등 13개 기관에 현대차 ‘스타리아’ 차량 각 1대씩 총 13대를 지원한다.

이 차량은 지역복지단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도 쓰일 예정이다.

강기정 시장은 “세방그룹의 따뜻한 나눔이 지역사회 곳곳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기부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전달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광

주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희 세방전기 대표이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세방그룹의 의지를 담아 준비했다”며 “작은 정성이라도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과 함께 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구제길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이번 기부는 이들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지원”이라며 “기업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나눔문화가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벤처 30주년 기념 ‘제1회 벤처주간’ 개막

내일부터 내달 2일 전국서 천억기업 기념식 등

광주는 28일 ‘여성벤처 성장 챌린지’ 시상식

국내 벤처의 30주년을 맞아 미래산업을 선도해 갈 벤처업계를 조명하는 축제가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제1회 벤처 주간’을 개최한다.

올해는 벤처 30주년과 모태펀드 출범 20주년을 함께 맞는 해다. 정부는 그간 벤처·스타트업을 국가 혁신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자금·기술·인력 등 전 분야에서 과감한 지원을 이어왔으며, 청년과 미래세대에 혁신과 도전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중기부는 벤처기업법 제정(1997년), 모태펀드 결성(2005년),

TIPS 지원사업 시행(2013년), 규제자유특구 지정(2019년), 유니콘 프로젝트 추진(2020년), 벤처투자법 제정(2020년) 등 굵직한 이정표를 제시하며, 국내 경제사의 여러 변곡점 속에서 늘 대한민국 벤처생태계의 성장 흐름을 견인해 왔다.

이에 중기부는 국내 벤처의 30년을 돌아보고, 미래 30년을 살펴보는 제1회 벤처주간을 마련했다.

30년간 벤처·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산업의 혁신을 이끌어온 성과를 공유하고, 2025년 현재 시점에도 ‘벤처’가 미래산업을 이끌 핵심 성장엔진을 활기하는 데 중점을 두고 행사가 진행된다.

벤처주간에는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

되는 개막 행사인 중소벤처기업 ‘M&A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30개의 연계행사가 마련된다.

오는 27일에는 벤처창업기업 기념식, 코리아 VC 어워드, 지역 엔젤투자 허브 및 엔젤투자자 밋업이 준비된다.

창업기획자(AC)와 함께 하는 봄업 콘서트, 대한민국 벤처 청춘 페스티벌, 벤처 30주년 기념식과 전야제 등도 만날 수 있다.

광주에서는 여성의 기술창업 확산과 유망 예비 여성벤처인 발굴을 위한 여성벤처 성장 챌린지 시상식이 28일 개최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난 30년간 K-벤처는 늘 새로운 길을 스스로 개척하며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어 왔다”며 “그 도전과 성취의 역사는 앞으로 30년을 열어가길 청년과 미래세대가 이어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중기중앙회, 유공자 포상 접수

내달 12일까지…내년 5월 시상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2026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의 신청접수를 다음달 12일까지 받는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830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 단위 최대 규모의 포상이다. 매년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 주)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시상이 이뤄진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모범 중소기업인(제조), 모범 중소기업인(유통·서비스),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 5개 부문으로 신청을 받으며, 심사를 통해 산업훈장(금·은·동·철·석판),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기관표창(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포상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제출서류를 내려받아 증빙자료를 첨부해 중소기업중앙회 포상전담팀 또는 전국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접수하면 된다.

단,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된다.

과거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내에 재포상이 제한된다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

포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포상전담팀 및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로 문의하면 된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중국 수출기업 FTA 활용 교육

광주상의, 실무 애로사항 청취

광주상공회의소는 오는 27일 지역 기업 대표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대(對)중국 수출기업을 위한 FTA 활용방안 교육’을 개최한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자 지역 기업의 주요 수출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원산지 기준과 다양한 FTA 체계로 인해 실무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상의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의 FTA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관세법인 한영의 박현수 관세사가 진행하며 △FTA 추진현황 및 중국 FTA 개요 △한·중 FTA·RCEP·APTA 협정 비교 및 실의 분석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관리실무 △인증수출자 인증 등 실무 적용성을 높은 핵심 내용으로 구성된다.

교육 수료 시 기업은 원산지인증수출자 접수 12점을 인정받을 수 있어 인증수출자 신규 취득이나 갱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원산지를 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을 받으면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고 통관 편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gjcci.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오는 26일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박시현 광주FTA통상진흥센터장은 “중국은 지역 기업이 반드시 공략해야 할 핵심 시장이지만,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교육이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바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충장신협은 최근 광주 동구 계림지역아동센터와 ‘2025년 신협 어부바 멘토링’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 매년 경제교육 및 관계 형성은 물론 아이들에게 건강한 협동심과 문화기회를 향유하기 위한 ‘신협 어부바 멘토링’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정명수 이사장은 “신협 어부바 멘토링은 아동·청소년에게 올바른 경제관념과 협동의 가치를 전파하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다음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승홍 기자 photo25@